

## 1 개요

한경면 두모리 김씨 집안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이다.

주인의 죽음을 집안에 알린 충성스러운 말(馬)의 용감한 행동이 전해온다.

## 2 내용

두모리에 사는 김씨 부자가 향교(제주시 소재)에서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날 조부의 제삿날이라 말을 타고 부지런히 집으로 가는 중에 한림읍 수원리까지 오니 너무 배가 고파서 참기 어려울 정도였다. 그때 횃불을 켜고 장사지내는 사람들이 보이자, 아버지는 거기로 조문하고 술 한잔을 얻어먹고 오겠다고 가버렸다. 아들은 말과 같이 한참을 기다려도 아버지가 오지 않자 현장을 가보니 상복을 입은 사람들은 허수아비였고, 아버지는 죽어 있었다. 아들은 아버지를 부둥켜 앓고 울다가 실신하였다. 홀로 남은 말은 두모리 집으로 달려가서 가족들에게 위급한 상황을 알리고, 친척들을 데리고 아들과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왔다. 충직한 말 덕택에 아들을 살리게 되었다.

## 3 특징

## 4 핵심어

말, 향교, 두모리, 수원리, 상제, 방장대, 허제비, 아버지, 아들

## 5 원전 서지사항

말(馬) 이야기(김영돈 · 현용준 · 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 6 관련 자료

새소리를 아는 사람(김영돈 · 현용준 · 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